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개 회 사

2023. 6. 19(월) 14: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간담회를
준비해주신 은행연합회와,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개최된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회의 이후,
각 업권에서 릴레이 세미나*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세미나) 금투업(3~6월), 핀테크(4월), 보험업(5월), 여전업(6월)
(현장간담회)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핀테크, 인프라 등 총 6회

오늘 간담회는 그간의 릴레이 세미나와 간담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종합 간담회입니다.

전 금융업권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만큼,
업권별로 논의한 그간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우선 전반부에는,
각 협회에서 업권별 해외진출 동향과 사례를 발표하고,
BC카드와 NICE신용평가의 해외진출 사례 발표,
금융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집니다.

다른 금융업권과 다른 회사들의
해외진출 경험과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해외진출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글로벌화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간 서비스 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서비스 순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이 18%, 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에 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향후 우리나라가
금융·보험서비스 수출을 크게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면
선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후반부에는 금융회사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규제개선 검토방향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여러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국내외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의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과도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은
현지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활성화,

해외진출 컨설팅 확대 등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건의된 사항을 규제개선 과제와 그 외 현지 영업과 관련한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중점 검토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여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셋째,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규제개선건 외에 제기된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관련입니다.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저는 지난달 금융협회, 금융회사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금융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현지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말씀해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7월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
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